



Candidates must complete this page and then give this cover and their final version of the extended essay to their supervisor.

| | | | |
|---------------------------------------|-----|------|------|
| Candidate session number | | | |
| Candidate name | | | |
| School number | | | |
| School name | | | |
| Examination session (May or November) | MAY | Year | 2013 |

Diploma Programme subject in which this extended essay is registered: Korean A: Literature
 (For an extended essay in the area of languages, state the language and whether it is group 1 or group 2.)

Title of the extended essay: 솔로호프의 괴한 둔 강과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혁명과
행보의 상관 관계

Candidate's declaration

This declaration must be signed by the candidate; otherwise a grade may not be issued.

The extended essay I am submitting is my own work (apart from guidance allowed by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 have acknowledged each use of the words, graphics or ideas of another person, whether written, oral or visual.

I am aware that the word limit for all extended essays is 4000 words and that examiners are not required to read beyond this limit.

This is the final version of my extended essay.

Candidate's signature: _____ Date: _____

Supervisor's report and declaration

The supervisor must complete this report, sign the declaration and then give the final version of the extended essay, with this cover attached, to the Diploma Programme coordinator.

Name of supervisor (CAPITAL letters)

Please comment, as appropriate, on the candidate's performance, the context in which the candidate undertook the research for the extended essay, any difficulties encountered and how these were overcome (see page 13 of the extended essay guide). The concluding interview (viva voce)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These comments can help the examiner award a level for criterion K (holistic judgment). Do not comment on any adverse personal circumstances that may have affected the candidate. If the amount of time spent with the candidate was zero, you must explain this, in particular how it was then possible to authenticate the essay as the candidate's own work. You may attach an additional sheet if there is insufficient space here.

This declaration must be signed by the supervisor; otherwise a grade may not be issued.

I have read the final version of the extended essay that will be submitted to the examiner.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 extended essay is the authentic work of the candidate.

I spent hours with the candidate discussing the progress of the extended essay.

Supervisor's signature:

Date:

Assessment form (for examiner use only)

| Criteria | Achievement level | | | | | |
|-------------------------------|-------------------|---------|------------|---------|------------|--|
| | Examiner 1 | maximum | Examiner 2 | maximum | Examiner 3 | |
| A research question | 2 | 2 | | 2 | | |
| B introduction | 2 | 2 | | 2 | | |
| C investigation | 4 | 4 | | 4 | | |
| 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 4 | 4 | | 4 | | |
| E reasoned argument | 4 | 4 | | 4 | | |
| F analysis and evaluation | 4 | 4 | | 4 | | |
| G use of subject language | 4 | 4 | | 4 | | |
| H conclusion | 2 | 2 | | 2 | | |
| I formal presentation | 3 | 4 | | 4 | | |
| J abstract | 2 | 2 | | 2 | | |
| K holistic judgment | 4 | 4 | | 4 | | |
| Total out of 36 | 35 | | | | | |

Extended Essay

Singapore

Title: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 강과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혁명과 행복의 상관 관계

Candidate Name:

Candidate Number:

Centre Number:

Word Count: 9187 글자수

Subject: Korean A - Literature (Category 2)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Extended Essay 2011-2013

개요

이 에세이의 연구 문제는 혁명이 과연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서 시작한다. 문학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이 혁명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는지를 연구해 보고 혁명과 행복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러시아 문학가 미하일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 강과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각각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과 사상 대립에서 출발한 한국전쟁에 배경을 둔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와 혁명의 나라로 불리는 러시아에서 발생한 혁명의 의미와 인간의 행복의 관계를 심층 분석해보고 결론을 내렸다.

이 에세이의 조사 방법은 작품 속의 두 주인공들인 그레고리와 김범우를 통해서 나타난 행복의 관점을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의 수필집 행복의 정복과, 행복에 관한 여러 저서를 남긴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마이어즈의 행복의 추구에서 정의한 행복을 근거로 분석했다. 작품의 시대적, 공간적,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을 모두 포함하는 두 작품의 맥락적 관점에서 혁명의 시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혁명이 개인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혁명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고 두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혁명으로 인해 더 불행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집단의 판단을 통해 시작된 혁명이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희생당한 것이다. 그러나 두 작품에 국한되지 않고 긴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혁명의 원래 목적을 부분적으로 성취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혁명은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혁명보다 혁신이나 개혁을 통해 행복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목차

| | |
|-----------------------------------|----|
| 제 1장 서론 | 2 |
| 제 2장 본론 | |
| 2-1. 작품의 배경적 맥락과 혁명의 시작..... | 3 |
| 2-1-1. 욕구의 불충족과 불행..... | 3 |
| 2-1-2. 희망과 기대감..... | 4 |
| 2-2. 혁명이란 맥락 속 행복의 박탈..... | 5 |
| 2-2-1. 사랑과 유대감..... | 5 |
| 2-2-2. 양심의 충족..... | 6 |
| 2-2-3. 주체적 의사결정..... | 8 |
| 2-3. 두 작품에서 혁명과 행복의 상관관계 비교 | 8 |
| 2-3-1. 두 작품의 공통점..... | 8 |
| 2-3-2. 두 작품의 차이점..... | 9 |
| 제 3장 결론..... | 11 |
| 참고문헌 | |

제 1장 서론

이 에세이는 조정래의 태백 산맥과 미하일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에서 나타난 혁명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학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조정래의 태백 산맥은 1948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반도를,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은 1920년대의 러시아를 배경으로 함으로써 당시 양국을 휩쓸었던 공산주의 혁명의 열기와 사상대립, 동족상잔의 비극에 대해 다루었다. 한국은 광복후 오히려 불구하고 계급제도와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가난으로 고통 받았으며, 러시아에서는 지배층의 부패와 봉건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불만이 속출했었다.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과 데이비드 마이어즈의 행복의 추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불행의 원인인 불안과 불만족이 당시 두 사회에 팽배했던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맥락적 배경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성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다. 즉, 혁명은 열악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간의 최후 발악적 저항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혁명의 불꽃이 거세지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혁명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배경을 형성하게 되었다. 두 작품은 혁명이란 두 작품의 맥락적 배경이 소설 속 인물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그들의 인생을 다각도로 조명하며 밝혀낸다. 양 작품의 결말이 모두 비극이라는건 주목해 볼만한 사실이다. 작품의 주인공들인 김범우와 그리고리는 혁명이란 맥락 속에서 그들의 주체적 자아가 무시된 채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했고 개인적 행복과 복리도 희생당하였다. 두 인물의 비극적 삶처럼 우리는 혁명으로 인해 개인의 행복을 빼앗겨야만 하는 것인가? 혁명이 두 작품에서 보여지듯 오히려 인간의 행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혁명의 의의는 무엇이며 유토피아가 달성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혁명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사회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작품 속에 나타난 두 주인공의 삶을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제 2 장 본론

2-1. 혁명의 시작 : 행복의 추구

2-1-1. 불행과 욕구의 불충족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찾게 되어 있다. 심리학자 마이어즈는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욕구 충족을 제시한다. 이때의 욕구는 육체적, 정신적인 욕구를 통틀어 지칭한다 (마이어즈 p17). 즉,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 되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고 행복해지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불행하

다고 느끼면 그들은 사회를 변화시켜 행복을 찾고자 할 것이다. 이때 사회 하층계급에서 시작된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는 극단적인 변화를 혁명이라고 정의한다 (옥스포드 인터넷 사전).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은 해방 후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되며 한반도에서 이념 대립이 발생했던 때이다. 이 작품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가난과 핍박 등 당시 국민의 대다수가 겪어야 했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제시되는 사회적, 경제적 배경은 혁명의 시발점이자 자극제였다. “배부른 자에게 이승은 극락일지 몰라도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이승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굶주리는 자들이 절대다수를 이룰 때 그 세상을 바로 지옥인 것이지요” 라는 대사에서 이 작품 속의 사회를 “지옥” 이란 심상에 비교함으로써 작가는 당시 생활의 극심한 빈곤함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내고자 하였다(조정래 p239; vol.1). 가난으로 인한 생리적 욕구의 불만족, 봉건주의와 식민통치의 잔재로 인한 사회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의 불만족이 당시 국민들과 소설 속 인물들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이들은 불행의 원인을 그들이 속한 사회 체제에 있다 생각하여 혁명만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행복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즉 작품에서 일어난 혁명은 모두 시대적 상황의 필연적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40년대의 한민족은 일본의 침략과 지주의 착취로 인해 “모습만 사람이었지 먹고 사는 꼴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 (조정래 p151; vol.1). 반만년이라는 역사의 흐름에 걸쳐 뿌리박힌 봉건체제는 엄격한 계층구조를 만들어 냈고 다수의 행복이 아닌 “소수의 지배계급만을 이롭게 하는 사회” 가 만들어졌다 (조정래 p144; vol.2). 사회 계층 하단에 있는 다수의 피지배층은 생존을 위해, 더 나아가 행복을 위해 필연적으로 혁명을 찾게 되었다. 이들에게 사회주의 혁명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다. 40년 앞선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과 모택동의 지휘하에 이뤄진 중국의 공산화는 당시 한국인들에게 혁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김범우는 부유한 양반가문의 자제로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생리적 욕구는 충분히 충족되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들은 오히려 그에게 큰 짐이 되었다.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자신이 가진 부와 사회적 위치에 대한 회의 등은 그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러셀은 행복의 정복에서 죄책감을 불행의 원인이라 지적했는데, 김범우는 죄책감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 (러셀 p53). 그는 사회주의 혁명이 모두가 잘 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작품의 초반에 혁명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김범우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건 태백산맥의 문화적 맥락 때문이다. 태백산맥의

배경인 1940년대의 한반도는 유교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특히나 김범우는 도덕성과 청렴결백을 강조하는 가풍에서 자라났다. 이러한 배경은 김범우를 특권의식에 행복해하기보다 죄책감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부유한 계층과 김범우가 대조되는 점은 그가 개인적인 이득보다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작가의 의도는 김범우라는 작품 속 인물의 가치관에 그대로 반영되어 당시의 상황에 불만을 품게 하고 혁명을 “인간생존의 양심을 밝히는 불씨”로 인식하고 갈망하게 만든 것이다 (조정래 p147; vol.1).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에서도 가난과 핍박에서 비록된 생존욕구의 불만족이 나타난다. 사람은 사회계층이나 부의 차이에 관계 없이 그 “누구나 먹을 입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와 그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존중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솔로호프 p604). 하지만 사회 하층민들은 가난과 사회적 신분의 차이 등의 이유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채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들은 러시아 전제군주 정권과 계급제도에 환멸을 느끼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1905년에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다. 사회의 하층민으로써 핍박받으며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다수의 러시아인들은 레닌의 지휘아래 사회주의만이 그들에게 평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고 혁명이란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회 변화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2-1-2. 희망과 기대감

불행한 삶에 고통받던 러시아인과 한민족은 혁명을 그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는다. 그들은 혁명이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 혁명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었고, 새로운 빛의 출현이었고, 새로운 길의 열림” (조정래 p148; vol.1)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혁명은 그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더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변화와 행복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서는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고 희망을 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새로운 힘의 원천이자 삶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에서도 변화를 갈구하는 불행한 다수에게 혁명이란 큰 희망이었다. 가난과 핍박 때문에 생활 속 깊이 불행이 뿌리 박힌 이들은 혁명의 필요성은 “생활이 저절로 가르쳐 준” 것이고 혁명의 시작과 이념의 팽배는 그들의 이러한 행복 추구에 “불을 붙여 주었을 따름”이다 (솔로호프 p605). 즉 불만이 가득한 사회적 맥락 속에 사람들은 혁명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고 희망을 건 것이다.

두 작품의 사람들은 이렇듯 더 나은 미래와 행복을 약속하는 혁명을 향해 나아간다. 하지만 두 작품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혁명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어즈 박사는 저서 행복의 추구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신념과 희망이 있다면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이어즈 p179). 태백산맥의 염상진은 혁명에 대한 신념과 굳건한 의지에서 행복을 찾은 인물이다. 불안한 미래와 육체적 역경 속에서도 그가 믿는 혁명에 열정을 불태움으로써 염상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를 보면 행복은 꼭 욕구의 만족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며 맹목적 열정과 신념만으로도 행복이 성취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 혁명에 의한 행복의 박탈

2-2-1. 사랑과 유대감

렛셀의 저서 행복의 정복에서 강조한 요소는 사회 구성원간의 사랑과 유대감의 필요성이다 (렛셀 p109).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으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 주변 사람들과 맺는 유대 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두 작품에서 그리고리와 김범우의 인간관계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 되는데, 작가는 가정과 친구, 남녀간의 사랑에서 크게는 민족과 인류에게 느끼는 사랑과 유대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의 충돌로 인하여 혁명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수반하게 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게 된다.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의 인간관계의 양상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어제의 친구가 사상의 차이로 인해 오늘의 적이 되고 형제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시대의 격변 속에 민족과 인류에 대한 사랑보다 사상에 대한 맹목적 신념에 도취되어 혁명의 근본적 목적을 상실하고 패권다툼의 혼란에 빠지면서 사회 전체가 파괴와 파멸의 불행으로 빠지게 되었다.

태백산맥에서 김범우는 혁명에 휩쓸려 국군과 인민군 사이를 오가며 사상적 혼돈 상태에서 괴로워 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기약 없는 헤어짐 속에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감이 단절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의 가장 절친했던 학창시절 친구인 염상진도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정래 p185; vol.3). 당시의 사상적 혼돈상태에서 빚어진 동족간의 반목과 증오는 오늘날 남북한의 끊임없는 대결구조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고요한 돈강에서는 그리고리의 인간관계가 좀 더 다각도로 조명된다. 그는 백위군

과 적위군과의 전쟁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전부 잃는 비극을 겪는다 (솔로호프 p1996). 그의 오랜 친구이자 매부인 미시카는 적위군에, 그리고리와 형 페트로스는 백위군에 속하여 친구가 아닌 적으로 전장에서 만나게 된다. 후에 페트로스는 미시카의 손에 죽게 되고 그리고리도 미시카의 음모로 고향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리는 사랑하는 아크시냐와 함께 사상 전쟁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패잔병 무리에 의해 아크시냐를 잃게 되며 “그의 생애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 이 발생하게 된다 (솔로호프 p1935). 서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친구와 애인과 가족, 즉 동족끼리도 서로 죽이는 참상을 겪었던 것이다. 혁명이라는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개인의 삶은 구겨지고 파괴되는 불가결한 과정을 거친다.

모든 것을 잃은 그리고리는 끝없는 고독과 상실감에 빠져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 혁명은 그에게서 정신적 유대감과 평안, 만족감을 준 모든 사람들을 앗아 갔다. 그의 삶은 혁명의 잔재인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끝없는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는 러셀이 행복의 정복에서 역설한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인 사랑의 상실에 해당한다 (러셀 p139).

고요한 돈 강과 그 시대적 배경을 같이하는 알베르 까뮈의 희곡 정의의 사람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러시아 혁명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조명한 작품이다. 이 희곡에서 주인공 카이아예브와 도라의 사랑은 결국 혁명이란 대의명분 앞에 좌절되고 만다. 그들의 사랑은 당의 동지애와 혁명 전사의 유대감이란 이름으로 변모하여 부정 당한다 (까뮈 p64). 한 남녀의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마저 불필요한 감상주의라는 누명을 쓰고 그 모습이 은폐 되어져야 하고 죽음으로서 갈라서야 하는 현실이 혁명이 가져온 결과물이었다. 도라와 카이아예브는 혁명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혁명은 카이아예브에겐 죽음을, 도라에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의 삶은 불행이라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까뮈 p110).

따라서 1905년 부터 1917년까지 약 십 년에 걸쳐 일어난 러시아 혁명은 단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혁명의 본래 목적은 어느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공산주의 혁명이 정착된 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인간의 삶이 혁명 이전보다 더 윤택해졌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소련은 1922년에 시작해서 1970년 이전까지 약 40여년간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간의 교역을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혁명의 부분적인 목적을 성취했었다. 또한, 6.25 전쟁 이후부터 1971까지 남한을 앞서간 북한의 경제 발전을 보면 양국의 국민들이 혁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행복해졌음을 볼 수 있다. 1972년 김정일 통치 이

후부터 공산주의 정치 경제체제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다시 소련과 북한의 국민들은 불행해졌고 소련은 그 이후 자본주의 체제로의 혁명을 시도하여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아직 이러한 혁신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전이 심각하게 정체된 상태이고 북한의 국민들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국제교육진흥원 pp. 271-281). 이를 보면 사회 체제의 변화가 인간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2-3. 양심의 충족

렛셀은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죄의식을 꼽았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의 선의지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렛셀 p43). 혁명이란 큰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이 인물들은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지 못하고 불의에 맞서고자 하는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주변의 강압에 의해 살인과 폭력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혁명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선의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죄의식 속에 행복감을 박탈 당한 것이다.

정의의 사람들에서는 혁명이라는 대의 앞에 인간의 선의지가 목살당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주인공인 카이아예브는 사회주의 혁명가로 태공을 암살하는 임무를 맡지만 태공이 탄 마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오랜시간 준비한 임무를 결국 실행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혁명이란 대의와의 충돌에 정의란 무엇이고 혁명이란 무엇인지 회의를 품게 되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사회는 그를 “백정”으로 만들려 한다고 말한다 (까뮈 p47). 이는 카이아예브가 렛셀이 불행의 한 원인으로 꼽은 죄의식에 시달려 행복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렛셀 p49).

그리고리는 전쟁에서 생애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강요당한 살인을 자행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짐승만도 못한 삶이라 여기며 괴로워 한다. 주인공은 살인의 죄의식에 사로잡혀 행복은 커녕 “힘에 겨운 짐”을 진 모습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 (솔로호프 p327). 혁명 과정에서 개인의 삶은 불행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으로 볼 때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리가 백위군으로 싸울 때 적위군 가정집을 약탈하는 것은 군내외에서 묵인되고 장려되기도 했다. 군인들은 약탈을 명령받기도 했으며 그들의 행위는 폭동의 진압이란 명분아래 정당화 되었다. 이에 그리고리는 자신의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 “약탈을 혐오”하여 약탈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솔로호프 p1002). 그러나 그의 이런 인도적 행

위는 군내 주변 인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혁명이란 상황적 배경이 없었더라면 인도적 행위로 칭찬받겠지만 이 작품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해되어지지 못한다. 혁명과 전쟁이란 극단적인 사회적 배경은 정의와 진실을 왜곡 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리는 끊임없는 죄의식에 시달리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

혁명은 두 작품의 인물들을 양심을 저버리고 죄의식으로 평생을 괴로워하며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행복을 빼앗았다. 사상적 대립으로 일어난 혁명이 폭력을 정당화하고 “인간을 위한 주의가 아니라 어떤 주의를 위한 인간”을 만들어 내었다.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강요하여 사람들의 인생을 불행 속으로 밀어 넣는 끔찍한 일이 자행된 것이다. 결국 혁명은 인간을 위해 행복을 창출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희생시킨 것이다 (조정래 p181; vol.5).

2-2-4. 주체적 의사결정

사람은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유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싶어한다. 러셀은 모든 인간은 정복 욕구가 잠재되어 있으며 작게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 보장과 크게는 외부에 끼치는 영향력 즉, 권력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러셀 p19). 그는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통해 인간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김범우와 그리고리의 경우, 혁명과 전쟁이라는 큰 역사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선택권이 박탈당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는 크게 보면 이 인물들의 자존감, 더 나아가 자아의 상실, 분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자아 성취의 욕구는 두 주인공들의 주체적 의사결정권의 박탈로 인해 충족 되지 못한다. 즉 러셀이 주장한대로 의사결정권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념의 충돌 속에서 비판이나 선택이 용납되지 않는 획일적이고 모순적인 질서에 줄을 맞춰 살아가도록 강요 받는다. 혁명이란 대의명분을 실현시키기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며 이상사회 실현을 추구했지만 그 희생의 대가는 지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집중되었다. 혁명으로 인해 개인은 “두 패로 갈라진 거대한 편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으깨져 죽을 수 밖에 없을 뿐”인 것이다 (조정래 p200; vol.5). 김범우는 학창시절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 사회 건설을 믿었다. 하지만 후에 학병으로 징집되고 미군 특수부대 훈련과정과 포로의 삶을 거치면서 사상에 회의감을 갖게 된다 (조정래 p194; vol.2).

솔로호프도 조정래와 같이 고요한 돈강에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개인의 운명은 “2 개의 멧돌 가운데서 으스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솔로호프 p611). 혁명과

전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큰 손에 의해 “장기의 말에 불과” 한 모습으로 움직여져야 하는 운명인 것이다 (솔로호프 p611). 두 작품속에서 혁명은 민중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지배계층의 손익 계산에 의해 막강한 정치 권력이 개입하면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기 쉽다. 예를 들면, 소련과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 혁명이 독재 권력의 온상이 되었고, 국민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감시와 공포, 가난에 시달리며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다.

2-3. 두 작품에서 혁명과 행복의 상관관계 비교

2-3-1. 두 작품의 공통점

먼저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두 작품 모두 비극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사실이다. 김범우는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 불구가 되어 돌아오고, 그리고리는 남겨진 아들과 함께 고향주변을 쓸쓸하게 헤메게 된다. 전쟁과 사상 싸움에 지쳐버린 두 인물의 모습은 혁명앞에 희생당한 행복을 상징한다. 이는 두 작가가 모두 혁명이 개인의 불행을 수반한다고 결론 지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혁명은 인간의 불행을 수반한다는 주제를 드러낸다.

또 다른 공통점은 두 작품에서 행복의 성취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사랑과 유대감, 양심의 충족, 주체적 의사결정이라는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두 주인공의 삶과 행복을 분석하였는데, 김범우와 그리고리는 혁명에 의해 이 세가지 요소가 박탈되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불행해진 것이다. 이 글에서 인용한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과 데이비드 마이어즈의 행복의 추구에도 이러한 요소들은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등장한다. 네 작품 모두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탄생되었지만 이렇듯 행복에 관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행복의 성취에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3-2. 두 작품의 차이점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두 작품은 혁명과 행복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서로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특히나 두 작품에 사용된 문학적 장치에서 차이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두 작품다 공산주의 혁명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 같지만 한국의 공산주의 혁명과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맥락은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 한반도 북쪽의 공산주의 혁명이 1940년대에 일어난 데에 비해 러시아의 혁명은 그보다 40여년 앞선 1905년에 시작되었다. 또한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이 노동자계급에서 시작된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었던데 반해 한국은 농민의 손으로 시작된 혁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의 설정 외에 인물 설정도 두 작품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 차이를 준다. 두 작품 모두 주요 등장인물이 농민 계층이다. 이 때문에 태백산맥에서는 이들의 불만과 혁명의 시작 사이의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반면에 고요한 돈강에서는 등장인물의 삶과 혁명의 시작 사이의 직접적인 개연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때문에 혁명은 어느날 불쑥 찾아온 불청객처럼 등장하고 당시 사회적 배경과 혁명과의 관계는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작가가 주변인물로 노동자를 등장시켰다면 혁명과 행복에 더욱 직접적인 개연성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행복의 필수 요소에 대해 두 작가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편이지만, 두 작품에서 제시되는 행복의 모습은 차이점을 보인다. 고요한 돈강에서는 그리고리와 아크시냐의 사랑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혁명이라는 큰 역사적 사건보다 인간의 사랑이 더 위대한 것이라는 작가의 주장은 아크시냐를 잃고 고독감과 상실감에 빠져버린 그리고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그에겐 혁명의 대의명분도 승리의 기쁨도 사랑 없인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반면에 조정래 작가는 염상진과 빨치산 당원이란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행복과 신념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김범우와 대조되는 주변인물로 염상진이 등장하는데, 이는 혁명의 대업에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우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사랑이나 양심의 충족보다 혁명을 향한 확고한 신념에서 행복을 찾는다. “회의 없는 신념을 가진 사나이, 그는 행복하다.” 라는 대사에서 행복은 열정과 신념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는 주장을 확인 할 수 있다(조정래 p327; vol.4). 태백산맥의 결말에서 염상진이 자결하고 남은 동지들이 혁명의지 계승을 다짐하는 장면은 숭고하고 아름답게 그려진다. 이는 사랑을 잃고 혁명에 대해 회의하는 그리고리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제 3 장 결론

두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리와 김범우는 혁명으로 인해 더 불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가족과 사랑, 친구 모두를 잃고 고독한 존재가 되었다. 혁명과 전쟁은 그들에게서 작은 행복마저 앗아갔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 수도 없었고, 도망칠 수 없었던 사상 대립의 현실 앞에서 압박과 폭력에 굴욕적인 삶을 지속했던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시작된 혁명은 진정한 의미가 퇴색된 채 지배층의 권력 다툼으로 빚나가면서 인간의 행복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며 혁명을

주도 하지만, 개인의 행복을 희생당하는 아이러니가 야기되었다. 이는 완벽한 선함을 지향하기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완전한 논리를 펼치기엔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불행은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두 작품 모두 공산주의 혁명이 진행되는 초기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혁명이 정착되고 이상이 어느정도 실현되었을 당시의 상황은 작품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역사적 안목에서 평가해 볼때, 공산주의 혁명이 정착된 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인간의 삶이 혁명 이전보다 더 윤택해졌다는 것이다. 소련은 공산주의 혁명이 정착된 후 약 40여년간 혁명의 목적을 부분적으로 성취했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김일성 통치기간 동안 경제 발전을 통해 물질적 행복을 어느정도 성취했었다. 즉 혁명 그 자체가 불행의 원인이 아니고 혁명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갈등과 분쟁 때문에 개인의 불행이 심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혁명이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심리적인 이점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과 불행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두 작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대 국가는 혁명이 아닌 혁신과 점진적인 개혁을 도입하여 발전을 꾀하고 자본주의의 허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혁명이 아니라 유엔에서 권장하는 불황해결책인 협동조합 개념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로 인간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이상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두 사실주의 문학을 연구하면서 사상적인 혁명의 격동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유토피아를 향한 집단의 결정일지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행복과 다수의 이득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참고문헌

국제교육진흥원. 한국사. 서울 : (주) 교학사, 1992. Print.

문학사전 편집위원회. 문학사전. 서울 : (주)도서출판 강, 2004. Print.

미하일 솔로호프. 고요한 돈 강. 서울 : 동서문화사, 2007. Print.

버트런드 러셀. 행복의 정복. 서울 : YBM Si-sa , 2002. Print.

알베르 까뮈. 정의의 사람들. 서울 : 서문당. 1996. Print

조정래. 태백산맥. 서울 : 해냄, 2007. Print.

"Definition of revolution." *Oxford Dictionaries*. N.p., n.d. Web. 8 Oct. 2012.

<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revolution>.

Myers, David G.. The pursuit of happiness: who is happy--and why. New York: W. Morrow, 1992. Print.